

전남지역 출생 의례복식의 현지조사 고찰

추 은 회[†] · 김 용 서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 생활과학연구소

A Study on the Ritual Clothing in Birth around Chonnam Area

Eun-Hee Chu[†] · Yong-Seo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Abstract

In Anthropology, ceremonies which human should pass in lives are difined as 'Rites of Passage'. Each Rite has its own Clothing style, which is little different from general Clothing in shape, composition, color, meaning, etc.

This Study shows composition and characters on Birth Ceremony Clothing through Documents and Survey around Chonnam Area. Survey Area is subdivided into 3 parts : Koksung(A Basin of Sumjin River-Eastern Area of Chonnam), Na-ju(A Basin of Yeongsan River-Western Area of Chonnam), and Kangjin(Southern Area of Chonnam).

This Study analyses characters on Baenaet Jōgori, 100th-day Clothing and First-birthday Clothing in Chonnam Area. In case of Baenaet Jōgori, its shape in Survey is similiar to that of documents. In case of 100th-day Clothing, New Jōgori and Bajj have been made usually. First-Birthday(called "Dol") Clothing shows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infant.

Male clothing consists of Pungcha Bajj, Jokki, Magoja, Doltti, while Female clothing consists of Pungcha Bajj, Chima, Jumōni, and Doltti.

In making of infant Clothing, 5-colors(Blue, Red, Yellow, White, Black) which consists of basic color in the Theory of the cosmic dual forces and Shape of Letters such as 壽·福·亞·卍 are used usually. This kind of colors and Shape of letters symbolize longevity and fortune.

As a result of study, I find what Ritual Clothing in Birth has many symbolic meaning which reflects life-style culture. This study lay meaning on that deals infant clothings as a kind of Ritual Clothing.

Key words : ritual clothing in birth, baenaet jōgori, 100th-day clothing, dolbok

[†]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P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 062-530-1340, Fax : 062-530-1349
E-mail : azim94@hanmail.net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출생하여 성장해 가면서 몇 차례의 중요한 관문을 거친다. 지역과 민족, 그리고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각 관문에는 독특한 의식들이 존재한다. 각 관문에 존재하는 이러한 의식들을 인류학에서는 '통과의례(通過儀禮 : rites of passage)'¹⁾라는 개념으로 총괄하고 있다

통과의례는 독특한 의식들을 포함하는데 각각의 의식에는 다양한 복식이 착용된다. 통과의례에 착용되는 이들 다양한 복식은 의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 이유는 의복과 장식이 예의 표현의 산물이며 격식을 갖춰 입음으로써 의례를 더욱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의례복은 고도의 상징성과 결부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하여 형태, 구성요소, 색상 등에서 일상복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낸다. 이들 복식의 상징성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또 그것을 적절히 반영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복식의 상징 연구를 통해서 생활 문화를 추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과의례 가운데서도 출생의례(出生儀禮)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복식을 출생 의례복식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의례복식에서 사용되는 형태, 구성, 색상, 문양 등의 상징들이 어떻게 생활문화와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둔다. 나아가 출생 의례복식인 배냇저고리, 백일복과 돌복식의 구성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전남지역 조사를 통해 알아본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종합하여 살펴보는 방식을 택했다. 복식 연구에서 과거 실물수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출생 의례복식은 아이의

장수와 길복(吉福)을 위해서, 또는 액(厄)을 면하기 위해서 옷을 불에 태우는 경우가 많았던 유습(遺習)으로 인하여 과거 실물수집을 통한 연구는 쉽지가 않았다. 따라서 문헌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문헌으로는 한국복식사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세시풍속, 그리고 근래의 한국 복식 사진 자료집을 이용하였으며, 지역적인 출생 의례복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 조사는 전라남도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3곳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섬진강 유역인 전남 동부지역 곡성군과 영산강 유역인 전남 서부지역 나주시, 그리고 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 남부지역 강진군으로 선정했다²⁾(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3). 조사 대상자는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80세 이상의 할머니들로 하였고, 조사방법은 면담조사를 선택했다.

연구 범위는 유물과 돌 사진이 보이는 1800년대 후반부터 80세 할머니들의 기억이 미치는 1930년대를 중심으로 출생 의례복식에 한정했으며 좀더 구체적으로 배냇저고리, 백일복과 돌복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II. 출생 의례복식의 구성

최남선의 「조선상식」에 따르면 “初七日에 깃업는 옷을 낚히고 二七日은 깃있는 옷에 두렁이를 낚히고 三七日是 비로소 上襦下袴의 具樣한 의복을 낚히고...”(최남선 1993) 아이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입히는 옷은 깃 없는 옷이었는데, 이것은 배냇저고리를 말하는 것이다. 배냇저고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에게 처음으로 입히는 옷이다. 막 태어난 아이는 쌀깃(강보)에 싸두지만 태어나서 삼일 째 되는 날, 이 옷을 입히게 된다. 배냇저고리는 생명의 처음 시작을 맞아들인 옷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배냇저고리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명칭은 지역에 따라 '배내옷, 일안옷, 삼칠일옷, 칠안저고리'라고 부른다. 흔히 출생 후 삼일부터 삼칠일 동안 입히는 옷이지만, 길게는 백일까지도 입혔다. 배냇저고리의 옷감은 주로 무명이나 삼베였다. 삼베로 된 배냇저고리를 입히는 이유는 삼이 약용의 재료로 병을 치유해 준

1) 프랑스의 인류학자이자 민속학자인 반 게넵(Van Gennep)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현재는 사회학·인류학 등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 개념은 인간 생활에서 연령·신분·상태·장소 등의 전이 단계에 시행되는 의례들을 일컫는 것으로, 한국적인 용어로는 관혼상제(冠婚喪祭)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전남의 지역구분을 할 때 동남부지역, 서남부지역, 서북부지역으로 구분한다.

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특히 연약한 아이의 살결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삼베를 사용하기도 했다.

배넛저고리를 만드는 방법은, 두자 정도의 삼베를 재단하여 품을 넓게 하고 막 태어난 아이는 하의(下衣)를 입히지 않으므로 아이의 다리 일부를 감쌀 수 있도록 길이는 길게 만들었다. 또한 소매의 길이도 길게 하여 아이의 손을 덮을 수 있게 하고 손톱으로 얼굴을 핥기지 못하게 했다.

배넛저고리는 깃과 삶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여뎨으로는 실타래로 묶거나 흰 실을 여러 겹으로 하여 하나의 긴 끈을 만들어서 배넛저고리의 허리를 한번 돌려 앞에서 매 주었다. 실로 띠를 하는 이유는 실은 장수를 상징하므로 명이 길어지고 귀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다.

배넛저고리는 흰색으로 만드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고 산모 자신이나 시어머니가 지었는데 반드시 손으로 꿰맸다. 배넛저고리는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달랐으며 아이에게 좋으라고 어머니의 무명겉저고리를 뜯어 만들어 입히기도 했다. 그러나 머리 지어 두면 액이 붙는다고 해서 출생 후에 바로 만들어 입히는 경우도 있다. 기후가 찬 북쪽 지방에서는 배넛저고리 위에 두렁치마라는 것을 입혔다. 이것은 여아들에게 많이 입혔던 것으로 어른의 치마형태로 지은 것이다. 배꼽과 배를 따뜻하게 해 주기 위한 보온용 의복으로 겨울에는 남쪽지방에서도 많이 지어 입혔다(조효순 1988).

백일복은 아들, 딸을 구분하지 않고 주로 흰색의 저고리와 풍차바지를 입혔다. 저고리에는 깃과 삶이 달린 원형의 모양으로 만드는데 명주나 비단, 고운 무명, 다듬은 모시 등을 사용하였으며 계절에 따라 누비옷, 솜옷, 겹옷으로 지어 주었다. 아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므로 저고리 겹깃 쪽 긴 고름을 가슴을 돌려 맬 수 있도록 길게 달아 주었으며 소매길이도 손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길게 만들어 입혔다. 특히 백일복은 백줄을 누빈 누비저고리나 백조각을 이어서 만든 백쪽저고리를 만들어 수명장수를 기원했다고 한다(석주선기념박물관 2000). 백일 전까지는 흰옷만을 입히던 것을 백일이 지나면 연한색의 옷을 입히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의는 백일을 전후하여 입힌다.

돌이 되면 남아와 여아의 구분이 확실해져서 입히는 복식에도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특히 돌복식은 의례적인 요소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형편상 백일을 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첫들은 검소하게라도 치르는 것이 보통이었다. 남아의 돌복식으로는 저고리, 풍차바지,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전복을 입고 머리에는 복건이나 호건을 씌우며 타래버선에 태사혜를 신는다. 여아의 돌복식은 색동저고리, 다홍치마, 까치두루마기, 조바위, 굴레, 땡기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주머니를 채우고 타래버선과 꽃신을 신는다(안명숙, 김용서 1996).

•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그림 1. 남아의 돌



그림 2. 여아의 돌 (1910년대)

• 조선시대 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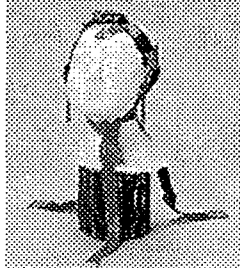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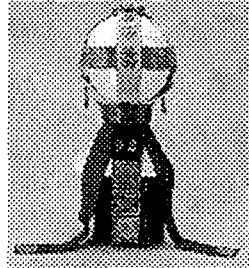


그림 3. 굴레(앞)



굴레(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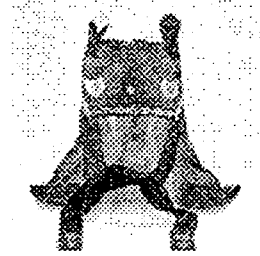


그림 4. 호건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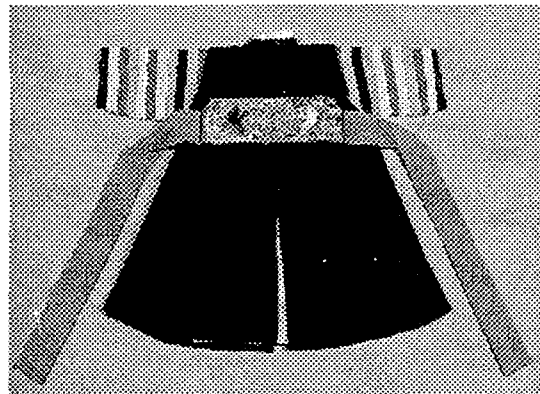
그림 5. 풍차바지(복식)



그림 6. 오방장두루마기(복식)



그림 7. 까치두루마기(앞)



까치두루마기(뒤,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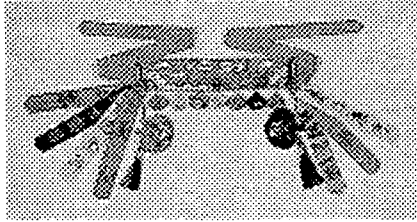


그림 8. 돌띠(전통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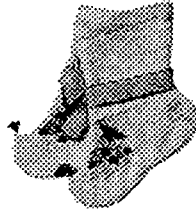


그림 9. 타래버선
(전통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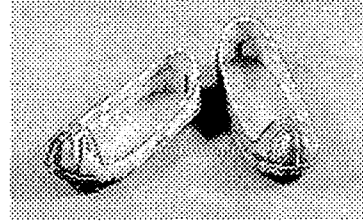


그림 10. 태사혜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III. 출생 의례복식의 지역적인 특징

1. 배냇저고리

배냇저고리의 명칭, 제작자, 제작시기, 소재, 색상.

여담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다(문화재연구소예능민속연구실 1993). 이 보고서의 조사항목을 토대로, 여기에 배냇저고리의 형태, 바느질 방법과 같은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위 문헌의 내용과 현지조사 내용의 차이를 <표 1>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배냇저고리에 대한 문헌내용과 현지조사 내용 비교

지역조사 방법 구분	곡성군		나주시		강진군	
	문헌	현지조사	문헌	현지조사	문헌	현지조사
명 칭	이레안저고리	이레안저고리	배냇저고리	배안에저고리	배안저고리	배안에옷
제 작 자	산모, 할머니	산모, 시어머니	산모, 시어머니	산모, 시어머니	산모, 시어머니	산모, 시어머니
제 작 시 기	낳기 이전	산전, 산후	낳기 이전	산전, 산후	낳기 이전	산후 삼일안에
소 재	무명, 인조	무명, 헌옷 뜯어서 만듦	면	무명, 용	무명, 전	무명, 자투리 헌옷 뜯어서 만듦
색 상	흰색	흰색	흰색	흰색, 액을 먼하기 위해 분홍색이나 유색	흰색	흰색
여 밍	실	실로 허리를 한바퀴 돌려 맨다.	실	실로 허리를 한바퀴 돌려 맨다.	실	실, 또는 돌띠로 허리를 한바퀴 돌려 맨다
길 이	.	손등과 다리를 덮을 수 있도록 길게 한다.	.	손등과 다리를 덮을 수 있도록 길게 한다.	.	손등과 다리를 덮을 수 있도록 길게 한다.
깃의 유무	.	깃은 달지 않음	.	깃은 달지 않음	.	깃은 달지 않음
쇳의 유무	.	쇳을 따로 재단하여 붙여서 만듦	.	쇳을 따로 재단하여 붙여서 만듦	.	형태상 쇳을 유지
바느질 법	.	손바느질로 감 침질	.	손바느질로 감침질	.	손바느질로 감침질
시접 처리	.	휘감	.	휘감	.	휘감

전남지역 3곳의 현지조사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배넛저고리는 문헌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명칭에 있어서 곡성군에서는 이레안저고리, 나주시에서는 배안에저고리 그리고 강진군에서는 배안에웃으로 부른다. 제작자는 조사지역이 동일하게 산모 자신이나 시어머니였다. 제작 시기로는 곡성군과 나주시에서는 아이를 낳기 이전과 산후에, 강진군에서는 산후였다. 배넛저고리 소재로 곡성과 강진에서는 무명과 무명의 자투리 감 또는 현옷으로 지어 입혔다. 나주시에서는 무명과 용의 옷감을 사용하였다. 배넛저고리는 남의 옷을 뜯어 만들면 오래 산다는 설로 실제 할아버지나 할머니 옷으로 지어 입힌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배넛저고리 색상은 조사 지역 모두 흰색을 사용하였으나, 나주시에서는 액을 면하기 위해 분홍색의 옷을 지어주기도 했다.

배넛저고리 여밈은 실을 사용하였다. 곡성군과 나주시는 실을 짜서 겹섶에는 긴 끈을 안섶에는 짧은 실끈을 달아 겹섶에 달린 긴 끈으로 허리를 한바퀴 두른 후, 앞에서 짧은 실끈과 함께 매어 주었다. 강진군에서는 실 또는 돌띠를 매어 주기도 했다. 배넛저고리 바느질은 감칠질로 손바느질했으며, 시접은 휘감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배넛저고리 소매길이는 아이의 손등을 덮을 수 있도록 길게 하였다. 그 이유는 손을 따뜻하게 해 준 반면에 손톱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저고리 길이도 길게 하여 다리를 감쌀 수 있게 하였다.

배넛저고리의 형태는 조사지역 모두 깃을 달지 않았다. 섶에 있어서는 곡성군과 나주시, 강진군이 차이점을 나타냈다. 곡성군과 나주시에서는 마고자와 같은 형태로 겹섶과 안섶을 따로 재단하여 붙였다. 그러나 강진군에서는 섶을 따로 재단하지 않고 길에서 섶의 모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현지조사 과정에서, 1930년대에 실제로 만들어 입힌 배넛저고리를 제보자³⁾의 증언에 따라 실제로 제작한 결과 그 치수는 다음과 같았다.

실제 제작한 배넛저고리 소재는 무명이고 흰색으로 만들었으며 여밈에서는 실을 짜서 허리를 한바퀴 돌려 앞에서 매주게 되어 있다. 형태는 손등과 다리를 감쌀

수 있도록 소매와 저고리 길이가 길고 깃은 달리지 않았다. 섶은 겹섶과 안섶을 따로 재단하여 길에 붙였고 바느질 방법은 손바느질로 감칠질했다.

〈표 2〉 제작하여 실측한 배넛저고리의 치수 (단위 : cm)

배넛저고리	길이	품		고대	진동	화장	수구
		앞품	뒤품				
	30	32.5	33	10	14	37.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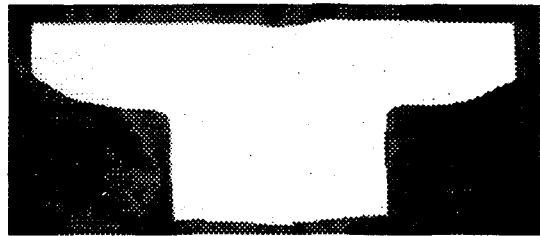


그림 11. 실제 제작한 배넛저고리

2. 백일복과 돌복식

「곡성 세시풍속」 보고서에 의하면 전남 등부지역 곡성군의 백일복으로는 백쪽저고리를 입혔고 돌복으로는 남아의 경우 연두색 저고리에 엷은 가지색 바지, 남색 조끼, 연두색 마고자, 분홍 두루마기를 입힌 후 남색 금박의 다홍띠를 매 주었다. 머리에는 검은색 복건을 씌웠고 발에는 버선코에 수를 놓은 누비버선을 신겼으며 수주머니를 채워주었다. 여아의 경우에는 노란 회장 저고리에 단속곳을 입힌 후 다홍치마나 진분홍치마를 입혀 주었다. 저고리 위에 남색 배자를 입히고 수놓은 작은 염낭과 여러 가지 노리개(장도), 은괴물 복푼(은에다 칠보조 칠한 것)장식을 달아 주기도 하였다. 머리에는 금박 조바위를 씌우고 오복 주머니를 채워주었다(곡성문화원 1987).

전남 서부지역 나주시의 백일복으로 상의는 적삼을 입히고 그 위에 저고리, 조끼, 마고자를 입히며, 하의로는 중우(속바지)를 입히고 그 위에 밑이 터진 바지 돗방애(풍차바지)를 입혔다. 돌에는 여기에 전복을 입히고 복건을 씌웠다. 귀한 아들이면 백일날에 백조각의 형질을 이어 붙여서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여아도 어

3) 심귀님, 여, 83세,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덕흥리 거주

릴 때에는 남아와 같이 입히고 둘에는 대부분 색동옷을 입히며 5~6 세부터 치마를 입혔다는 보고가 있다 (문화재연구소예능민속연구실 1986).

전남 남부지역 강진군에서는 백일복과 돌복의 기록이 보이는 문헌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강진군을 제외한 위 문헌의 내용과 현지조사 내용의 비교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한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곡성군에서는 백일복으로 저고리, 바지를 지어 입혔고 색상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있는 천을 사용했다. 돌복식으로는 남이는 옥색이나 흰색 저고리, 검정 또는 회색 가래바지⁴⁾, 다홍조끼를 입히고 주머니를 채워주었다. 여아는 색동저고리, 가래바지, 다홍치마를 입히고 주머니를 채워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주시에서는 백일복으로 흰색저고리, 검정바지 또는 있는 천을 이용하여 새옷을 지어 입혔고 돌복식으로는 남이는 옥색저고리에 바지, 남색조끼, 마고자, 돌띠를 해

<표 3> 백일복과 돌복의 지역별, 성별 비교

		백 일 복			돌 복		
		곡 성 군	나 주 시	강 진 군	곡 성 군	나 주 시	강 진 군
남 아	문 헌	백쪽저고리	백쪽저고리 적삼, 저고리 조끼, 마고자 중우(속바지) 돛 방 애 (풍차바지)		연두색 저고리 가지색 바지 남색 조끼 연두색 마고자 분홍 두루마기 금박 다홍 띠 검정 복건 수 누비버선 수 주머니	적삼, 저고리 조끼, 마고자 중우(속바지) 돛 방 애 (풍차바지) 전복, 복건	
	현 지 조 사	저고리, 바지	흰색저고리 검정바지	깨끗한 옷	옥색 또는 흰색 저고리 검정 또는 회색 가래바지 다홍조끼, 주머니	옥색저고리 바지 남색조끼 마고자 돌띠	저고리 가래바지 깨끗한 옷
여 아	문 헌	백쪽저고리	남아와 같음		노란 회장저고리 단속곳 다홍 또는 진분홍 치마 남색배자, 노리개 작은 염낭 은괴물 복돋 금박 조바위 오복주머니	남아와 같이 입히고 대부분 색동옷을 입힘	
	현 지 조 사	저고리, 바지	흰색저고리 바지	깨끗한 옷	색동저고리 가래바지 다홍치마 주머니	분홍저고리 다홍치마	저고리 가래바지 깨끗한 옷

4) 제보자들이 밀이 터진 가래바지라 했는데 풍차바지를 가래바지라 칭하는 것 같다.

주었고 여아는 분홍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지어 입혔다.

강진군에서는 백일복으로 특별하게 지어 입히지 않고 있는 옷 중에서 깨끗한 옷을 입혔으며, 돌복으로는 새 저고리에 가래바지만 지어 입혔고 깨끗한 옷을 차려 입히는 정도였다. 조끼나 마고자 종류는 아이들에게 입히지 않았다.

현지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일반 서민들의 백일복과 돌복식은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었으며,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지어 입혔다. 까치두루마기나 머리에 쓰는 복건, 굴레 등을 만들어 입힌 가정은 많지 않았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돌복식은 일반 서민이 입히는 돌복식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경제력이 클수록 백일복과 돌복식의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반면 생활이 어려우면 복식에도 기본 차림새만 갖출 뿐이었다. 생활환경의 차이가 복식구성이나 의례 인식에도 다르게 나타나듯 양반가와 농가의 옷차림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전남지역은 기후가 따뜻하여 저고리 위에 덧입히는 마고자, 두루마기는 생략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남은 지리적으로 서울과는 아주 먼 거리에 있었다. 그리하여 왕실이나 사대부가의 복식을 모방하여 입히기 보다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지어 입힌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백일복과 돌복식의 구성요소보다 전남지역 백일복과 돌복식은 착의가 단순하다는 사실을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전남의 주된 생업은 농업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생활 속에서도 아이에게 백일복과 돌복식을 갖춰 입힌 것을 알 수 있다.

IV. 출생 의례복식의 상징성

1. 형태

출생 의례복식에 나타난 형태에는 아이가 백수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조사지역 모두에서 배냇저고리 여밈은 긴 실이었다. 실은 장수를 상징하므로 수명장수를 염원하는 마음이 배냇저고리 여밈에서 나타난다. 더군다나 배냇저고리는 남의 옷을 뜯어서 지어 입히면 오래 산다는 설로 실제 할아버지나 할머니 옷을 이용해 만들어 입혔다. 이 또한 장수를 염원하는 마음

에서 비롯된 것임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백일복으로 입힌 백쪽저고리나 돌에 입히는 두루마기에 매 주었던 돌띠 역시 장수를 바라는 마음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돌복식에 남아가 머리에 쓰는 호건은 호랑이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호랑이는 용맹을 상징하는 동물로 용감하고 씩씩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쓰였을 것이다.

2. 색상의 음양오행적 표상

음양오행사상에 근거한 오정색(五正色)인 청색(靑色), 적색(赤), 황색(黃), 백색(白), 흑색(黑)과 오간색(五間色)인 녹색(綠色), 벽색(碧色), 홍색(紅色), 유황색(驪黃色), 자색(紫色)의 10가지 색상은 우리의 색채 의식을 지배해왔다(정시화 1991a).

우리가 사용한 색상에는 의미와 상징을 내포하고 있었다. 아이를 낳으면 백일까지 흰옷을 입힌 이유는 무병장수를 비는 마음 때문이었다(최옥자 1977a). 현지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사지역 모두 흰색 배냇저고리를 지어 입혔으며 백일까지도 주로 흰색의 옷을 입혔다. 그러나 나주지역에서는 액을 면하기 위해 유색의 옷을 지어 입히기도 하였다. 흰빛은 모든 빛깔 가운데 가장 밝은 색으로 신성함을 간직하였고 순결과 청렴을 내포하는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악한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할 때는 적색 또는 청색을 즐겨 사용하는데 실제 벽사(辟邪)의 용도로 사용된 것은 적색이 압도적이다. 벽사의 의미로 사용된 붉은색의 매개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출생을 의미하는 금줄에 붉은 고추를 들 수 있다(구미래 1992).

돌복식에 입히는 남아의 청색 전복과 여아의 다홍치마는 액의 접근을 막고 악귀를 방지하는 주술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조사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아에게는 남색, 적색조끼를 여아에게는 다홍치마를 지어 입혔다. 조사자들의 말로는 청색과 빨간색이 예뻐서 해 입혔다고 했지만 그 색상이 의미하는 상징성에서 비롯된 듯하다.

조선시대의 복식 중에는 색동천의 사용이 많았다. 특히 색동천은 남아와 여아의 돌복식에 많이 쓰였으며 돌복식의 저고리, 마고자, 두루마기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색동은 청색, 적색, 백색, 황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흑색 대신에 분홍이나 초록색을 사용

한다. 색동의 색 배치에 있어서도 오행을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열하여 무궁한 성장을 기구해 왔으며 그 목적에 따라 음양오행의 이치에 합당하게 의복을 갖추어 입혔다(강윤숙 1993a). 조사지역에서도 돌복식으로는 색동저고리를 지어 입혔으며 이처럼 색동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음양오행사상은 고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색채의식과 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생활방식이 변화함으로 색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조사지역에서는 검정, 회색바지를 지어 입혔는데 조사자들에 의하면 자신들이 직접 물감을 들여 입혔고 때가 잘 타지 않은 실용성과 편리함 때문이었다.

출생의례복식에 사용된 색상은 아이의 무병장수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져 있으며 색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가 복식에 내포되어 음양오행적 표상으로 나타났다.

3. 길상과 기하학적인 문양

문양은 민족적 특성과 고유성이 깃들여 있으며, 복식의 특징을 표현해 주는 한 요소로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는 문양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금박이나 자수에 의하여 더욱 미화하기도 하였다.

배넛저고리와 백일복에는 문양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돌복식에는 문양이 많이 쓰였다. 저고리, 바지, 치마, 전복, 조끼보다는 굴레, 복건, 조바위 같은 쓰개 종류와 땡기, 돌띠, 주머니, 타래버선 등에 문양이 많이 쓰였다(심화진 1997).

돌복식에 사용된 문양은 주로 수(壽), 복(福)과 같은 길상어문(吉祥語文)과 기하문(幾何紋)인 아자문(亞字紋), 만자문(卍字紋) 등이 많이 쓰였으며 화문, 학, 나비, 불로초, 표주박문 등이 사용되었다.

수, 복과 같은 길상어문은 한자를 그대로 취하여 문자 뜻대로 아이가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돌 복식에 많이 사용된 문양이다. 아자문과 만자문의 기하문은 계속 이어지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최대의 길상을 나타내며 무한장구(無限長久)하다는 뜻을 상징하고 있다.

돌복식 유물에서는 이러한 문양들이 쓰여졌으나 보고서 내용에서는 출생의례복식에 사용된 문양은 별로 조사

되어 있지 않았다. 현지조사를 실시한 지역 제보자들 역시 문양에는 신경을 크게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생 의례복식에 사용된 문양들은 영아사망률이 높았던 시기에 아이가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수와 복과 덕을 상징하는 길상어문이 복식에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양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여 복식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장식적인 차원에서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복식을 출생의례복식으로 규정하고 출생의례의 내용과 그에 따른 출생 의례복식의 구성 요소 상징성을 파악하며 전남지역의 현지조사를 토대로 전남지역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현지조사 결과 전남지역 배넛저고리는 문헌에 기록된 내용과 커다란 차이점은 없었다. 명칭, 제작자, 제작 시기, 소재, 색상, 여밈, 길이 등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형태에 있어서는 곡성군과 나주시에서는 마고자와 같은 형태로 겹섶과 안섶을 따로 재단하여 붙인 반면 강진군에서는 섶을 따로 재단하지 않고 길에서 섶의 모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남지역은 백일복으로 새 저고리에 새 바지를 지어 입혔다. 돌복식으로 남이는 옥색 저고리에 밑 터진 가래바지, 조끼, 마고자, 주머니, 돌띠, 여아는 색동저고리, 가래바지, 다홍치마, 주머니 그리고 돌띠를 지어 입혔다. 전남지역은 문헌에 기록된 백일복과 돌복식의 구성요소를 완전히 갖추어 입히기보다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차려 입혔다.

출생의례복식은 여러 가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배넛저고리 여밈은 조사지역 모두 긴 실이었다. 실은 장수를 상징하므로 아이가 백수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배넛저고리 형태에 담겨져 있다. 백쪽저고리 또한 장수를 바라는 마음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출생 의례복식에 사용된 색상은 우리의 색채사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에 기초한다. 배넛저고리 색상은 조사지역 모두 흰색이었고 백일까지도 주로 흰색의 옷을 입혔다. 흰색 옷을 입히는 이유는 무병장수(無病長壽)를 비는 마음에서였다. 흰빛은 가장 밝은 색으로 신성함과 순결 그리고

청렴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조사지역 돌복식으로 남아에게는 남색, 적색조끼를 여아에게는 색동저고리, 다홍치마를 지어 입혔다. 아이를 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남색과 다홍색이 지니는 벽사성에서 비롯된 듯하다. 색동 역시 오정색을 사용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이처럼 색상이 내포하는 상징성이 복식에 표현되어 음양오행적 표상으로 나타났다.

문양으로는 주로 수(壽), 복(福)과 같은 길상어문(吉祥語紋)과 기하문(幾何紋)인 아자문(亞字紋), 만자문(卍字紋) 등이 많이 쓰였다. 길상어문과 기하문의 문양은 장수(長壽)와 길상(吉祥)의 상징이다. 이런 상징적인 문양들이 복식에 표현되어 아이가 장수와 부귀길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문양들은 복식에 화려하게 수를 놓거나 금박으로 표현하였다.

예로부터 장수는 인간의 최대의 관심사이며 특히 영아사망률이 높았던 과거에는 아이의 무병장수가 모든 부모들의 가장 큰 염원(念願)이었다. 이러한 소망이 형태나 색상 그리고 문양으로 표현되어 복식에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출생 의례복식의 의미와 구성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 그것들의 상징들을 알아볼 수 있었으며, 또한 이 상징들이 생활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옛것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복식의 의미를 파악하고 보존하는 것은 연구자의 몫이다. 사라져 가는 출생의례복식의 의미를 현대에 되살릴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투고일 : 2003년 4월 29일

참고문헌

곡성 문화원(1987). **곡성 세시풍속**. pp 32-33, 청진문화사.
 구미래(1992). **한국인의 상징세계**. pp 49-53, 교보문고.
 강운숙(1993). **복식에 나타난 오행색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20 : 12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1993).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 24책, 산속편 상권, pp 143-285,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198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의생활편, p 241,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박성실(2000). **한국전통 어린이복식-아기옷에 대한 실증적 고찰**. p 168, 석주선기념박물관.
 심화진(1997). **아동한복에 나타난 색과 문양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35 : 102
 안명숙, 김용서(1996). **한국복식사**. p 172, 교문사.
 온양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1988). **조선시대의 관모**. 온양민속박물관.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1993). **전라남도지**. 제1권, p 300, 전라남도.
 정시화(1991).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한국인의 색채의식에 관한 연구**. p 70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조풍연(1986).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서문당.
 조풍연(1996).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속**. 서문당
 조효순(1988). **한국복식풍속사연구**. p 190, 일지사.
 조효순(1995). **복식**. 대원사.
 최남선(1993). **조선상식**. p 47, 보고서.
 한영화(1997). **전통 자수**. 대원사.
 A. 반 개념 · 전경수 역(1997).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제보자 김기임(여, 92세)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춘곡리
 김종립(여, 78세) 전라남도 강진군 칠향면 봉황리
 정연례(여, 80세)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심귀임(여, 83세)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덕흥리
 이판순(여, 97세)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덕흥리
 조판례(여, 84세)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덕흥리
 문정례(여, 81세)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이점순(여, 83세)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최정숙(여, 80세)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